

# 북한개발소식

# 08

2019 August

통권 166호

| 이달의 주제 |

재외 탈북자 인권과 우리의 기도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 북한개발소식 2019 August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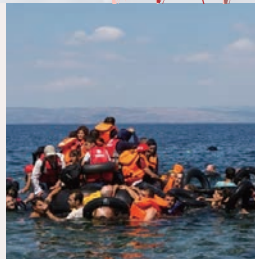
이달의 주제 :

재외 탈북자 인권과 우리의 기도



01

권두칼럼  
재외 탈북자 인권과  
우리의 기도



11

칼럼 1· 이호택  
재외 탈북자에 대한  
하나님의 난민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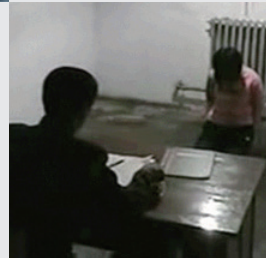
17

칼럼 2·  
북한인권단체 나우  
(NAUH) 사역자  
탈북자 복송과  
재외 탈북자 인권



23

탈북민 수기· 마리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5)



30

북한 뉴스

37

서평  
북한선교개론



39

북한 기도 제목



# 재외 탈북자 인권과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탈북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90년대 중반으로부터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가 3만이 넘었고 이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사람들이 겪는 인권 침해도 여러 매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내 각종 수용소 운영 및 고문, 비상식적인 처벌 등이 주로 부각되곤 한다. 그렇지만 북한 인권은 단순히 북한 지역 내 문제로 국한지을 수 없다. 북한 주변 국가들에서도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정치적 손익에 따라 행동하면서 더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근래에도 탈북자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중국 등 제 3국으로 팔려 원치 않는 강제 결혼의 피해자가 되거나 향락 산업에 동원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올해 4월 30일 서울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 북송 반대 집회 모습〉

재외 탈북자 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피해자(혹은 생존자)의 증언 및 조사를 통해 이들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대규모 북송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고, 국제적으로도 화제와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렇

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관심은 식어지고 북송 위협에 놓인 탈북자들의 소식이 들려와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기된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분위기라면 이러한 우리의 무감각도 조금은 변명거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왔고 탈북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올해에도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에 대한 소식이 잇달아 보고되고 있다. 올 4월 중국 선양지역에서 9살 난 최양을 포함한 7명의 탈북자가 체포되어 먼저 탈북하여 남한에 온 가족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북송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였다.<sup>1</sup> 6월에도 탈북자 20여명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송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있었다.<sup>2</sup> 탈북자들의 고난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는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될 민족적 아픔이다. 이번 글에서는 재외 탈북자들이 처한 상황과 각 국의 정치적 입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우리의 노력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한다.

## 탈북자에 대한 각 국의 입장과 쟁점

탈북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된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과 대부분의 탈북자가 탈출하거나 거쳐가게 되는 중국, 그리고 남한 등 당사국들이 각각 다른 관점으로 탈북자를 이해하기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북한은 탈북자들을 반체제, 반사회주의적 행위로 본다. 제 발로 국경을 걸어 나간 탈북자들은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형법은 탈북행위를 비법국경출입죄와 조국반역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sup>3</sup> 북한 인권백서에 따르면 처벌 수위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 기존에는 초범에 한해서는 6개월의 노동단련대 형이 주어졌으나 14년 이후로는 탈북 횟수에 관계없이 3년에서 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

1 BBC 코리아, “북송 위기 탈북자 가족 ‘9살 제 딸의 강제북송을 제발 막아주세요’”, 2019. 04. 30. <<https://www.bbc.com/korean/news-48036756>>(검색일: 2019.07.04)

2 조선닷컴, “12세 소녀 등 탈북자 20여명 中 공안에 체포...북송 위기”, 2019. 06. 0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9/201906090194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9/2019060901942.html)>(검색일: 2019.07.04)

3 통일연구원, 2018, 『북한인권백서』, 서울:통일연구원, 399.





〈17년 7월 24일, 루강(陸慷)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다.〉

게 되며, 한국행을 시도하다 잡혀온 경우 정치범으로 처벌된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다.<sup>4</sup> 열악한 북한의 구금 환경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장기간의 옥살이를 하게 될 경우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입장과 처벌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1951년 재정된 유엔 난민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라 난민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1) 공포를 느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2)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지, 3)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지' 라는 3가지 항목을 꼽을 수 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해 북한은 단순히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죄만이 아닌 조국에 대한 반역의 죄목이 부과되고 있다. 즉 북한은 조국을 떠나는 행위 자체를 체제에 반항하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4 같은 책, 403-404.

때 탈북자들은 강제로 복송되었을 시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탈북자들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거기에 타국인 중국에 머물고 있고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공포로 인해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국제법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sup>5</sup>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부족한 식량공급으로 인한 빈곤문제로 탈북한 것이며, 이는 난민 협약이나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난민이 아닌 단순한 ‘불법 입국자’라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과 중국 간에는 탈북자 처리의 근거가 되는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1960년 체결한 「중국-북한 범죄인상호인도 협정」(일명 밀입국자송환 협정), 1986년 체결하고 98년 개정된 「국경지역 업무협정」 등의 협정 등이 그것이다. 중국은 이에 따라 탈북자를 불법 입국자, 즉 범죄자로 규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해 탈북자 강제 복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의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 17년에도 중국은 유엔인권이사회(UNHCR)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요청에 대해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면서 “중국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sup>6</sup> 그러나 중국측이 준수한다고 언급한 법이 어떤 법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을 수 밖에 없다. 설사 탈북자들의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강제 복송된 탈북자들이 받는 비인간적, 비인권적 처벌과 대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사면초가의 놓이게 만든다. 중국에 머물려고 하니 언제 잡혀서 복송될지 모르고, 국적 취득도 불가능하다. 신분의 불안함을 악용하여 인신매매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와 학대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조국인 북한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리 만무하고 오히려 처벌이 두려워 돌아갈 수도 없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평생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면 중국에서도 탈출하여 남

5 정상우, 최희(2017). “재중탈북자의 난민 인정 여부와 법적 보호 방안”. 공법학 연구, 18(4), 126-133.

6 한국일보, “중국 ‘탈북자 난민 아냐’… 강제송환 지속할 듯”, 2017.07.2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7241982483561>>(검색일: 2019. 07. 05)

한이나 타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남한 정부는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별도의 국적 취득 없이 소정의 점검 및 교육 시기를 지나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제 3의 국가들도 비록 절차는 복잡하지만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북자들의 목숨을 건 탈출은 계속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체포와 복송의 악순환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

### 최근 정치적 상황과 위기의 탈북자

현장에서 본 중국 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는 때마다 차이가 있었다. 탈북자들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때가 있고, 또 단속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기 보다는 걸리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 상당수의 탈북자가 여성으로 비록 인신매매라는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시골에서 쉽게 결혼하지 못하는 중국인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인 만큼 주민들의 여론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의 체류 묵인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태도가 항상 같은 수위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지형과 국가간 관계에 따라 탈북자들의 안위가 흔들리고 있다.

1-2년 전만 하더라도 북중 관계는 역대 최악을 달렸다. 북한의 계속된 핵 실험에 중국 지도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갈등이 깊어졌고, 이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의하고 제재에 동참하는 등 서로에 대한 신뢰 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 6월 20일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손뼉을 치고 있다.〉

계가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 17년 들어서 양국관계의 레드라인을 언급할 정도로 2016년에 비해 더 악화되었으며, 의례적 수준의 교류를 제외한 실질적 협력채널이 모두 단절되었다. 19차 당 대회 직후 쑹타오 중국특사의 방북(17년 11월 17~20일) 당시 김정은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도 양국관계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장면이었다.<sup>7</sup>

그러나 근래에 북한과 중국의 사이는 매우 가까워졌다. 북한이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원했고,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중국이라는 배경이 필요했다. 특히 미중간의 무역 분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카드를 늘리기 위해 북한과의 협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들어가면서 두 나라의 공조 대세는 매우 강화되었다. 양국 정상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5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특히 올 6월에 있었던 제 5차 정상회담은 시진핑이 직접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국의 정치적 협력 강화는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이다. 양국 지도부의 관계 개선은 단순히 지도부 뿐 아니라 국경지역 실무자들간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요청에 따라 중국의 탈북자 색출 및 북송 작업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현지의 증언에 따르면 작년부터 중국의 시골 지역에서 마을의 주민 대표를 통해 각 동네의 탈북자 거주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공안의 불시 추적 활동도 전보다 자주 포착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 관계 뿐 아니라 중국 자체의 정책 변화도 탈북자들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중국이 남한에 대해 소위 '사드 보복'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2017년 이후로 중국은 한국인들의 중국 내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에도 중국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입장을 강요하는 뉘앙스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 전반이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히 선교사들의 피해가 컸다. 선교사들이 중국 정부의 단속의 주요 타겟이 되면서 추방 러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

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7-2018』, 서울:통일연구원, 27.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 위치한 한 가정교회가 단속으로 파괴된 모습. (영국 데일리 메일)〉

고 선교사들 상당수가 사역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일반 한인 교회도 정부의 압박에 폐쇄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생활의 도움을 받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위태로운 때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탈북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시진핑 정권의 종교 정책도 탈북자들의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개정된 종교 조례 시행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가정 교회의 경우 각종 벌금과 허가 취소 등을 통해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기 등록된 삼자 교회에 대해서도 CCTV설치, 국기 제양, 시진핑 초상화 개시 요구에서부터 주일학교 운영 금지 및 일정 연령 이하 교회 출석 금지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sup>8</sup> 특히 조선족 교회들과 국경지역 교회들은 탈북자들을 돕거나 북한과 관련된 사역을 할 수 없도록 전방위적인 단속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북한은 중국 외에도 러시아 및 제 3국과 탈북자 관련 공조를 강화해왔다. 북한과 러시아는 16년부터 ‘불법체류자 송환 협정’,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 ‘수형자 이송 조약’ 등을 잇달아 체결하였다. 이중 불법체류자 송환 협정의 경우 북한을 탈출해 망명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복송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협정 체결 당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러시아가 이 협정을 근거로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국적 노

8 김종구, “근래의 중국 기독교 박해와 그 영향”, 오픈도어 북한개발소식 2019년 5월호. 15-22. 참조

동자들을 체포해 강제북송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약을 이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sup>9</sup> 북한은 라오스와의 양국간의 보안기관의 협력을 위한 상호 협정을 맺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라오스는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주요 탈북 루트로서 이에 대한 차단과 탈북자 송환 등이 관련된 합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sup>10</sup>

###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우리의 기도

앞서 살펴본 탈북자들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한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탈북자의 인권은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 북한 정권이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속에서 탈북자 인권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탈북자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탈북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북한 정권이 있다. 북한은 주민 통제의 일환으로 국경을 통제를 강화하고 사람의 왕래 뿐 아니라 각종 정보 통제에도 힘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들은 북한 주민들을 동요시키고 북한 정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탈북자 난민 인정 등의 조치를 선뜻 시행하기 어렵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탈북자 정책은 이런 점에서 매우 정치적이다.

북한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해 지금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중단하고 강제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정치적 핍박이 멈춘다면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겠지만, 죄를 엄하게 묻고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동안에는 탈북자들은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실상의 난민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 인권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북한의 문제이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권 문제 제기에 북한도 여론을 의식하며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고문이나 폭력 등을 자제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정보화, 세계화 시대로 나아가는 동안에도 자신의

9 VOA, “다루스만 보고관 “러시아, 북한 노동자 강제송환 말아야””, 2016.02.27. <<https://www.voakorea.com/a/3209848.html>> (검색일: 19.07.05)

10 서울신문, “北, 러시아 이어 라오스와의 ‘탈북자 송환’ 협정”, 2016.03.0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7005008>> (검색일: 19.07.05)




〈올 6월 6일 열린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체제 유지를 위해 통제에만 열을 올리는 북한의 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에 북한은 연이은 각국 정상과의 만남 및 예상 외의 고층 건물과 정돈된 거리를 갖춘 평양의 모습을 통해 지도자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단지 가려져 있을 뿐, 현 북한 정권의 지도자 신격화와 주민들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기 백성의 삶과 인권보다도 정권의 안위에 집착하는 행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탈북자들을 돕고자 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사역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된 관심과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다. 먼저 탈북자들의 안전과 정당한 지위를 위해 기도하자. 국가로부터 핍박의 위협을 느끼는, 돌아갈 곳 없는 이들의 처지가 인정되고 난민으로서 정당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더 이상 물건취급 받으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하자. 두번째로 현장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탈북자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더욱 위험해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을 영육간에 돕는 일은 멈춤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역이 지속되고 영적, 육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세번째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북미간의 외교 속에 단순히 핵문제만 거론되는 것이 아

나라 탈북자들을 포함한 인권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때 북한 인권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전반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기도하자. 북한이 기존의 통치 방식을 버리고 주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그리고 이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필수적인 자유권이 보장되도록 기도하자.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탈북자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한 난제이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들린 아들의 치유를 위해 애쓰는 부모가 등장한다. 부모는 예수님께 할 수 있으시면 아이를 자유케 해 주시길 요청한다. 이미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다 실패한 상황에서 아이의 치유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때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은 믿음이였다. 제자들의 실패를 들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시고, 아이의 부모를 향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치유하신 주님께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그러지 못했는지 물을 때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성도라 할 지라도 북한의 변화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고, 오랜 기간 기도 해왔음에도 여전히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멀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것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우소서’ 라고 부르짖었던 아이의 부모의 마음으로 믿음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 

# 재외 탈북자에 대한 하나님의 난민보호

이 호택 ((사)피난처 대표, 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 1. 사면에 장벽

500명의 예멘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온 일 때문에 작년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재중탈북자들의 강제북송에 관한 소식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국경은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난민들은 생명의 위협 때문에 담을 넘는다. 국경을 넘은 외국인 가운데 전쟁이나 박해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타국에 갇힌 강제적 이주자들을 난민이라 한다.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심각한 생명의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신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 2019년 6월 현재 세계의 난민은 남북한 전체 인구에 육박하는 7,080만명이다. 한국에도 956명의 인정난민과 2,084명의 인도적체류자들이 난민으로 보호받고 있다.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운 탈북자들이 중국정부의 단속과 강제북송을 피해 더 깊이 은신하고 더 멀리 피어나갔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동북3성 지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과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한국인 목사와 선교사들을 대거 추방시켰다. 더구나 이제는 스마트폰에 의한 신분인식과 교통, 숙박, 거래, 감시 등 생활의 모든 영역이 정보화되어 신분이 없는 탈북자들이 중국에 은신하고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돌아가지도 머물지도 탈출하지도 못하는 탈북자들은 사면의 장벽에 갇혀 필사적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참새도 아시고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민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난민상황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재외 탈북자에 대한 난민보호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가. 아니 도대체 탈북난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 2.마지막 추수의 때

성경은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전쟁과 재난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고, 과연 난민의 시대라 할 수 있을 만큼 전세계적으로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유사 이래 전쟁과 난민이 있었으나, 지금의 난민사태는 평범한 사태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웠던 두 장막이 무너지면서 그 곳으로부터 난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1989년 동서독의 통일로 상징되는 동구권의 붕괴로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출신의 난민들이 발생했고, 2011년 아랍의 봄 이래 이슬람세계가 붕괴하면서 중동지역 무슬림 난민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제정세로 보아도 성경의 예언으로 보아도 난민사태는 더욱 격화될 것이고 특별히 중동지역에서 대량난민이 발생할 것이다.

난민사태를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솔직이 답이 없다.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고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누가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장벽을 높이고 담을 넘는 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탈북자들을 불법월경자로 색출하는 중국정부의 태도나 예멘난민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국민여론은 인간적으로는 솔직 간명한 해결책으로 보이기도 한다.



〈터키와 4km 떨어진 그리스 레스보스 섬을 향해 바다를 헤엄치는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 (UNHCR)〉

그러나 재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요 특별히 마지막 때의 재난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서 추수가 일어나는 산통(birth pain)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마 24:8,14). 재난은 분명 인간의 실패이고 난민들이 그 가운데 고통하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목이 곧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재난을 통해서라도 구원얻을 사람을 부르시고야 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 3.사명자들

재난은 대처능력의 한계를 넘는 위험이기 때문에 재난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허둥거리다가 보면 손에 있는 아까운 것들을 놓치게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차례차례 포기한다. 평상시에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던 흔들리는 것들을 모조리 날려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들만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재난가운데 일어나는 진동인 것이다(히 12:26-27). 북한이 흔들릴 때 북한의 많은 것이 변했다. 중동이 흔들릴 때 무슬림들의 이슬람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이다.

재난 중 일어나는 대부분의 반응과 결과들은 사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다. 난민이 되고자 한 사람도 없고, 난민들의 이주 역시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데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은 별 생각없이 그저 따라갔을 것이다. 데라가 당초 목표를 수정하여 하란에 주저 앉아 살아도 딱히 가나안까지 가야한다고 주장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어디로 가야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가다보니 아버지랑 함께 오고자 했던 가나안땅에 도착하고 말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다. 아버지를 따라갔을 뿐인데 사명으로 부르시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헤맸을 뿐인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된다. 난민들 역시 재난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름받은 사명자들이다. 헤메는 와중에 믿음의 훈련학교를 이수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국인들을 부르실 것이다(사41:2). 이스라엘과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피와 불과 연기의 전장에서 훈련된 탈북자들을 사용하실 것이다(욥2:27-30).

#### 4. 북한과 중국의 정책

북한과 중국은 동시에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이며 종교자유침해국이다. 특별히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정책을 기반으로 두고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책임규명을 위하여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책임규명을 돕는 조직으로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중국에 대하여는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중지하고 유엔난민기구의 탈북자접촉허용, 인신매매된 탈북자들의 보호,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자 및 자녀의 보호, 중국 영토내에서 북한요원들에 의한 납치 중지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은 올해 들어서도 탈북자 단속과 강제북송을 강화하면서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 김정인을 방문함으로써 북한인권침해의 비호자요 후원자가 바로 중국임을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라는 이유로 단속과 북송을 계속하면서 이들을 난민으로 보호하려는 활동가들을 인신매매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탈



〈서울 글로벌센터에 위치한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 감금된 채 매춘과 사이버섹스 등의 성노예가 되거나 강제결혼 당하고 있어도 중국정부가 인신매매범들을 단속하기는 커녕 난민구조활동가들을 인신매매범으로 단속하면서 탈북자 강제북송을 계속하고 있다.

## 5.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non-refoulement)

북한이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외부세계의 진실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고 주민들을 공포로 다스리면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세계의 정보가 유입되고 북한 주민들이 공포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면, 그리고 탈출한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면 북한은 더이상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난민보호는 북한민주화의 핵심적인 열쇠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라 난민을 보호하기로 하였고 중국정부는 1982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난민협약의 핵심은 제33조는 “어느 누구도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난민의 의지에 반하여 그를 강제로 송환할 수 없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non-refoulement)이다. 중국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이 문제될 때마다 탈북자들이 불법 경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해 중국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은 이런 불법입국자들을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탈북자를 국내법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면 언뜻 맞는 말처럼 들리고 중국 국내법에 의하면 불법월경 및 불법체류자를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난민문제는 중국 국내법사안이 아닌 국제법 사안이며, 국내법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처리가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 가입국이므로 중국이 난민협약에 위반하여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할 때 문제를 제기하고 협약의 준수를 촉구하여야 한다.



〈대부흥 당시 마포삼열 선교사와 평양 여자 사경회 모습〉

## 6. 회복의 기도

분단된 민족의 고난과 탈북 행렬은 이스라엘민족의 고난과 출애굽을 연상케 한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져도 하나님께서 끝내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한반도 복음화와 평양대부흥의 진원지가 된 북한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하시며 막힌 담을 허신다. 그리스도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부르시며,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실 때 고난가운데 친히 부르시고 지키시고 훈련하신 탈북자들도 사용하시기를 기도한다(사41:2). ☞



# 탈북자 복송과 재외 탈북자 인권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 사역자 (2006년 탈북, 현 북한인권개선 활동가)

현재 한국사회에 정착해 있는 탈북민은 약 37,000명이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그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그들을 통해 은둔 속에 가려져 있던 북한이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 등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대략 5만 명에서 7만 명 이상이다. 일각에는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평균 5만 명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국 거주 탈북민 중 여성이 90% 이상이다. 그들은 대부분 북중국경을 넘는 순간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대륙의 각지로 팔려나간다.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나이가 어릴 수록 한국화폐 천만원에서 나이가 많으면 몇 십만원 단위까지 내려간다. 팔려간 많은 이들은 그 집안의 재산 취급을 받고 감금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탈북여성들은 정착 후 몇 년 뒤 탈출을 시도하다 잡혀가 갇은 폭행을 당하고 짐승처럼 묶여 있기도 한다. 인신매매로 탈북여성을 매입한 한족 남자들은 자신의 재산이 도망 못 가도록 온 동네와 협동해서 감시하곤 한다.

얼마 전 외국의 한 언론사에서는 중국 내에서 탈북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및 성매매사업 시장이 연간 1억 달러가 넘는다는 보도를 했다. 이 중에는 수많은 미성년자들도 있다. 이처럼 수많은 탈북여성들은 중국 곳곳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브로커들은 이들의 처지를 이용해 강제 성매매 사업에 탈북 여성들과 소녀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에 대한 성폭행도 서슴치 않는다. 그리고는 이들을 이곳 저곳에 팔아버린다. 팔려간 많은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몸쓸 짓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를 통해 구출된 탈북여성들의 대부분이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자기 조국이 있는데 그냥 북한으로 돌아가자

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중국 공안(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체포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 때문이다.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대부분은 “자본주의의 문물을 먹고, 조국이 어려울 때 배신한 혁명의 배신자들”이라며, 죄의 경중을 따져 노동단련대(평균 6개월~2년)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한다. 이들의 죄목은 비법월경죄(불법월경죄)이다.

하지만 노동단련대 형은 단순히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인신매매로 팔려간 탈북민들이 잡혀 강제북송된 경우에 받는 것이고,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죄의 격이 달라져서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 보안서(경찰서)가 아닌 국가보위부의 조사를 거쳐 교화소(교도소)에서 적게는 1년, 많게는 7년형 이상을 받거나 정치범 수용소 수감 혹은 공개처형 형을 받기도 한다. 조사과정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악랄한 고문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북한주민들은 북한보위부와 보안서(경찰서)에서 자행되는 고문을 보고 광복군들을 고문하던 일제 순사들보다 더 잔악하다고 말한다.

북한의 교화소를 한국의 교도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곳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없으며 기초적인 생존 물품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사람



〈2005년 한 집회에서 북한 군인이 탈북자를 고문하는 장면을 연출한 모습 (뉴시스)〉

들이 교화소에서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려 나온다. 따라서 중국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사는 탈북자들은 그렇게 심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북한보위부나 북한 감옥에 가는 것보다 나은 삶이라는 생가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북한정권은 UN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인권의 천국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선전한다. 평양에는 교회, 성당, 모스크 등 다양한 종교시설이 있으며,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 앞에서 미리 연습한 배우들이 연극을 한다. 하지만 이면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교회를 접촉하거나 종교를 믿는 즉시 정치범으로 취급해 엄벌에 처한다. 강제 복송된 탈북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취조하는 것이 바로 ‘중국에서 교회에 갔었는가’이다. 이는 곧 한국 사람 혹은 외국인을 접촉했는가는 질문과도 같다. 그만큼 북한은 한국 사람들과의 접촉,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과의 접촉을 무서워하며 차단하려고 한다.

필자 역시 북한 출신으로서, 이들이 왜 그토록 기독교를 두려워하고 탄압하는지 생각해 봤다. 그것은 바로 김씨일가가 성경책 안에서 자신들의 정치 우상화 원리를 많이 베껴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한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수령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부르고, 김정일이 죽은 후 2010년대에 들어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같은 사이비 사상이 국가 사상으로 자리 잡았고, 수령이 인간에서 신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에 의해 그의 아버지 김일성은 하나님처럼 죽어서도 영혼이 살아 있는 ‘신’이 되었고, 실제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죽은 김일성이 죽은 후 100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 아들인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북한 노동신문에 ‘두 분의 대 원수님이 죽어서도 함께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며, 마치 신이 죽은 것처럼 선전하기도 했다.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듯 그들은 스스로를 신으로 포장했고, 사이비 이단들이 쓰는 수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민들을 세뇌시켜 온 것이다. 현재 북한 정권을 이끌고 있는 김정은도 백두혈통을 강조하면서 신처럼 군림하고 있다. 이들 세 명은 삼위일체 교리에 그들을 끼워맞추기라도 하듯, 김씨 일가를 욕하거나 그 정권을 제재하려는 사람들에게 ‘최고존엄모독’이라며 발끈한다.

하지만 김씨집안은 구 소련의 대원수인 스탈린의 도움으로 북한에서 토착공산주의 세력을 숙청하고 권력을 잡은 집안이며,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김정일도 실상은 구 소련 연해주에서 출생해 ‘김유라’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들이 강조하는 백두혈통이라는 정통성은 이미 시작부터 날조된 것이



고, 그들의 정치사상도 성경책에서 상당 부분 베껴온 부분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김씨일가는 자신들의 유일성을 위협할 만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두려워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칭하고 있는 거짓신이라는 것이 들통나고, 북한 주민들이 그 세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 1995년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우리 역사에 유례없는 식량난이 찾아왔다. 수 백 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사하거나 실종됐다. 1997년부터는 더 심한 ‘고난의 강행군’이 시작되었고, 대규모 탈북이 시작됐다. 탈북의 시초가 된 것은 ‘꽃제비’라고 불리는 부모 잃은 거리의 아동들이었다. 이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강을 건너 중국에 갔고, 그곳에선 집에서 키우는 개나 돼지도 옥수수를 배불리 먹고 산다는 사실을 접했다. 이들을 통해 ‘중국 가정집에 가면 먹을 것을 준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퍼지기 시작했고, 생계를 책임지는 수많은 북한 여성들이 자신의 굶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당연히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중국인 인신매매꾼들이었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사업처럼 자리 잡았다.

김정일 정권 때는 탈북자들을 보고 “혁명의 배신자들이 갈 테면 가라”는 식의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탈북자는 ‘나라의 망신’이라며 대대적으로 제3국 거주자 색출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와 협력해 이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기도 했다. 북한은 철광석, 산림자원 등 많은 지하 자원

들을 탈북자 검거 및 강제송환 비용으로 지불하기도 했다. 특히 얼마 전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서는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과 색출이 이어져 북송을 기다리는 탈북민들이 국경지역 구치소에 많이 수감된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그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해 이들을 인도적으로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적 불법월경자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으로 지속적인 강제 송환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탈북자 색출 강화로 5천 여명 이상을 강제 북송했으며, 2003년 미국 난민위원회(USCR)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매주 150명 이상의 탈북자가 강제북송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요즘 북중 관계가 좋아지면서 탈북자 색출 및 강제북송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에는 중국 쪽과 북한 쪽에서 탈북을 막기 위한 국경 철책선과 CCTV 등을 설치하고 있다. 뇌물을 받고 국경을 넘겨주던 북한 군인들에게도 북한 당국이 돈만 받고 이들을 모조리 신고하라는 지령을 내려 탈북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가 구출하고 있는 제3국 체류 탈북민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되어 인간 이하의 고통을 당하다 오신 분들이다. 그들 중 탈북 여성 두 분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한다.

“고난의 행군 때 배급을 주지 않아 저는 강냉이와 감자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개인 소토지로 있는 것을 먹고 살다가 2012년 2월 어머니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홀로 버티다 6개월 후인 2012년 8월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조중 국경지역에 설치된 중국측 철조망〉



당시 저의 나이는 24살이었고 11살 연상인 한족 남성에게 팔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팔려가 다음해에 애를 낳았습니다. 애가 없던 집이라 저의 아기만 빼앗고 저를 다른 지역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후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하면서 살았고 2017년 탈북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잡혔고 중국감옥에서 2년간 갇혀 있다가 올해 1월에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신분이 없기에 애를 빼앗겨도, 갇혀도 할 말을 못 하던 삶을 벗어나려고 자유의 길에 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면 대리모의 삶이 아닌 떳떳하게 많이 배워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저는 결혼한 후 여러 가지 공업품과 물고기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1995년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국가에서는 배급도 주지 않고 홀로 가정을 유지하기 매우 힘들어서 2010년 가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자 바로 1년 연상의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 후 저의 삶은 낯선 이국땅에 정착도 하기 전에 영문도 모른 채 일은 안 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몽둥이로 수업이 맞아야 했습니다.”

이들의 사연은 우리가 결코 눈 감기 힘든 이야기들이다. 국제적인 압박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복송문제는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심과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과연 누가 그들을 대신해 살려달라고 목 놓아 간절히 울부짖을 수 있을까.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북한주민들은 어쩌면 우리의 침묵 속에 죽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한 대규모 유대인 학살이 자행됐을 때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침묵했으며 그들의 죽음을 외면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정권은 잘못을 했지만, 이들의 잘못을 알고도 침묵한 모든 사람들도 어쩌면 방조죄에 해당하는 귀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처럼 침묵해서는 안된다.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북한을 위해, 그리고 제3국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같은 민족이고 형제자매들인 우리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본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우리의 이웃인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영혼들이다. 그들을 위해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묻는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출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덜 마셔도 그들에게는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극동방송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여 힘을 합치면 하나님의 기적이 북한 땅과 제3국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탈북민들에게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 🙏

## 신앙의 자유를 찾아 (5)

●  
마리아

소위 ‘비법월경자’를 실은 수송차는 다리를 건너 북한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5년 만에 도착한 조국이다. 연고 없는 외지에서 강제로 팔려 다닐 때마다 꿈에서라도 돌아오고 싶었던 이곳, 그 누구보다도 만나고 싶은 자식과 가족들이 있는 나의 고향...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조국의 반역자라는 꼬리표가 쇠사슬 사이에 붙어 있다.

5년 만에 바라본 조국은 참으로 보잘것없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5년이나 지났음에도 이 나라의 시간은 멈춘 것만 같았다. 길거리 사람들의 초라하고 색 바랜 옷차림도 여전했고 건축 현장에는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어 일꾼들이 수동으로 시멘트를 끌어올렸다. 심지어 보위부에서 우리를 인수한 간부들도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바지를 입었다. 이 땅에서는 가장 번듯하게 차려입어야 할 이들의 옷차림에도 열악한 결핍의 흔적이 녹아있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이 정서에 뭐라 이름 붙이기도 전에 변방대 차가 멈추었다. 나와 함께 탄 죄수들은 쫓기듯 내팽개쳐졌다. 오랜 방랑을 거치고 오랜만에 알아보는 조국의 냄새는 째조름하면서도 어딘가 서러운 단내가 났다. 주변을 다 돌아볼 새도 없이 내 앞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서있는 보위부 소장은 우리의 존재를 경멸하듯이 처음부터 욕지거리다. “이년들 어디 조국을 배반하고...” 차마 옮겨 적을 수 없는 온갖 ‘간나 새끼’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구류장으로 이송되었다. 우리를 문 앞에 세워놓더니 나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최대한 고분고분한 자세로 “회사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나도 모르게 남한식 말투가 튀어나온 것이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위부 소장은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며 “야, 이 간나 새끼, 남조선말을 한다!”라고 쌍욕을 퍼부었다. 일전에 중국에서 공간에 잡혀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남한 말씨를 연습했던 이 습관이 이 나라에서는 나를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나는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



〈북한 감옥 삽화 (채풍기, 한통신문)〉

도 그럴 것이 보위부 심문 과정에서 '기독교 접했는가?' '한국 드라마 봤나?' '한국 사람 만났는가?' 등의 질문은 반드시 나오는 민감한 이슈인데 이러한 분위기가 무색하게 아주 첫 장부터 남한 말을 하고 있었으니 '난 이제 끝장이 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날부터 그 구류장에서의 나의 별명은 남조선 말투를 배워가지고 돌아온 '괴물'이 되었다. 간수들은 감방을 다니면서 다른 죄수들에게 '이번에 괴물이 들어왔다'며 소문을 냈고, 죄수들은 '무슨 짐승이 들어왔나?' 하고 수군거렸다.

처음 구류장에 실려 오면 죄수들은 모든 물건들을 빼앗긴다. 이름이 표기되어 창고에 보관되고 그 죄수가 이동될 때 물건들이 함께 이송된다. 눈에 보이는 소지품들을 빼앗은 뒤 그것도 모자라 몸 안에 불법 물품을 숨기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검사는 기본이다. 간혹 잡혀온 죄수들이 돈이 되는 물건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금목걸이나 반지를 미리 먹어 두어 위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화장실에서 찾는 경우도 있었다. 나 같은 경우는 북한에 들어오기 직전, 끌려오는 차 안에서 중국 돈 천 원을 몸 안에 숨겨놓았다. 그러나 이곳 구류장에서 그런 술수는 어렵도 없었다. "몸 검신에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은 간부는 우리를 건물 안의 한 공간으로 데리고 갔다. 첫 번째 방에서는 옷 안팎의 소지품을 구석구석 전부 점검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얼마나 지독하게 검사를 하는지 여자들만 따로 불러 가서 한 차례 검사를 더 하였다. 바닥에는 세수 솥에 물이 받아져 있었고,

한 여자 군의가 노란 고무장갑을 차고 있었다. 우리는 지시에 따라 탈의를 하고, 바닥에 꾸그리어 앉았다. 여자 간수는 고무장갑으로 각 여자 죄수들의 몸 안에 손을 넣고 금품을 숨겼는지 구석구석 뒤졌다. 그렇게 한 사람의 몸을 검사하고 세수 솥에 손을 씻은 후 다음 사람의 몸을 뒤졌다. 생전 처음 보는 이 광경을 보면서 질병을 옮기지나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내 차례가 되었고, 내 몸을 검사하던 여간수는 점점 표정이 미묘해지더니 급기야 내 눈을 마주치고는 “이 간나 새끼, 어디서 돈을 숨겨 가지고는 시치미를 떼는가!”라며 난리를 피웠다. 아직 몸에 있던 중국 돈 천 원이 짊어진 것이다. 이로써 나는 돌아온 조국에서의 끔찍한 첫날을 보냈다. 남한 말씨와 숨겨놓은 돈 덕분에 첫날부터 열두 간나를 넘어선 옥설이 두 귀를 가득 채웠다.

모든 검사를 마치고 감방 번호와 죄수 번호가 주어졌다. 감방 안에 앉아있으면 벌써 소문이 짝 퍼졌는지 간수들이 다 나를 구경하러 왔고, 심지어는 과장된 남조선 말씨로 나에게 말을 걸며 조롱했다. 같은 방 죄수들은 그제서야 그 ‘괴물’이라던 작자가 나인 것을 알아채고는 그 남조선 억양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매를 맞을 수 있다며 걱정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중국에서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끌려온 이곳에서는 도리어 하루 종일 부동자세로 앉아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새벽 다섯 시부터 저녁 열 시까지 하루 일과라고는 돌처럼 가만히 양반다리로 앉아서 두 손은 무릎 위에, 고개는 90도로 숙이고 있는 게 다였다. 조금이라도 몸을 들썩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면 영락없이 간수가 와서 구둣발로 사정없이 걷어찼다. 온몸이 근질근질하



〈구류장에서 강요되는 부동자세,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고 답답하여 차라리 밖에서 노동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그것도 자기 순번이 되어 취조를 받은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몇 차례 견어차이고 나니 몸이 제 알아서 돌처럼 굳어졌다

변소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다. 참을 수 없는 용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호실 \*번 소변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였다. 마땅한 화장실 없이 같은 방 죄수들에게 말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는, 문도 없고 벽도 없는 구석의 공간에서 일을 해결했다. 식사도 형편없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밥시간이 되었건만 나는 배급 음식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몇 숟가락 안되는 밥에 시커먼 무 시래기와 옥수수가루, 두부 콩 찌꺼기 조금 이 전부였다. 심지어 무 시래기도 몇 년 동안 절인 것을 한 쪽아 처박아 놓았다가 죄수들에게 주는 식이었다. 그 역한 냄새와 생김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마 남한에서는 한날 짐승에게도 주지 않을 수준의 음식일 것이다. 중국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갈 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것이 조국에 잡혀 돌아온 죄인의 양식이구나... 도저히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아 처음에는 나이 어린 죄수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세 끼를 굶고 나니 옆에 있던 죄수가 “그래도 입에 넣으라우. 여기에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소.”라며 권했다.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이것이라도 먹고 견디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입에 열심히 우겨넣었다.

한 동안 소식이 없던 내 위장이 갑자기 신호를 보내왔다. 평소 같으면 평범한 용변 시간이지만 이 시기만큼의 간수도 민감하다. 몸에 숨기어둔 중국 돈 천 원 때문이다. 이미 발각된 마당인지라 이 돈은 나오는 순간 남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부동자세로 앉아있다가 손을 들어 “선생님, 돈을 빼야 하는데 화장실에 가도 됩니까?” 하고 여쭙었다. 잠시 후, 중국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밤낮으로 일하여 마련해 둔 귀중한 천 원이 더러운 오물과 함께 내 손에 쥐어졌다.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물로 비비고 비누로 깨끗이 씻었건만 더러운 냄새는 가시지 않아 간수들에게 욕을 먹고는 다시 화장실로 돌려보내졌다. 혹시나 해서 치약으로 다시 한 번 벅벅 돈을 닦았더니 신기하게도 냄새가 다 가셨다. 이 애석한 돈은 찢어지지도 않았다.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이 녹아든 이 돈은 이제 영원히 내 손을 떠나 간수 선생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한없이 서러웠다.

그러나 순간 한 가지 꾀가 떠올랐다. 간수 선생이 돈을 전부 세 보지는 않겠

지. 천 원 중 오십원을 순간 챙기고 나머지만 간수 선생에게 태연하게 바쳤다. 그리고 그 오십원 한 장을 돌돌 말아 담요 실밥으로 고정해서 마룻바닥 작은 틈에 돈을 재빨리 넣었다. 나중에 나갈 때 이 돈을 가지고 나가야지. 희미한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 날부터 매일 마루 틈새를 보며 왠지 모를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간수가 남자 죄수들 무리를 데리고 들이닥쳤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하는데 간수가 우리를 보고 “일어셋!”, “뒤로 돌앗!” 하고 외쳤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일어서서 뒤로 돌아 벽에 고개를 박고 서있는데 지금부터 감방을 바꿀 것이니 각자 짐을 가지고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아차 싶었다. 마룻바닥에 숨긴 돈을 챙길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방을 옮겼다. 지옥 같은 감방 생활의 한 줄기 위로가 사라졌다. 실망이 말할 수 없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 용기인지 오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소리쳤다. 내가 요청한 그 간수는 우리들의 모든 짐을 관리하는 보위부 직원이었다. 그분은 영문도 모르고 나에게 불러와서 ‘무슨 개수작을 부리려고 나를 찾았는가’ 물었다. 나는 겁도 없이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는 그 오십원을 찾아서 선생께 드리겠다고 하였다. 내가 가질 수는 없더라도 차마 마룻바닥에서 썩히고 싶지는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이 돈이 왜 그렇게 눈에 밟혔는지 모른다.

그 간수 선생은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개수작’ 치지 말라고 호통은 쳤으나 내가 돈을 찾아서 준다는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나를 그 이전 감방으로 데려갔다. 간수 선생의 한 마디에 새로 이사 온 남자 죄수들도 기계처럼 벌떡 일어나 벽을 보고 뒤돌아섰고, 나는 예전 내 자리에 있던 그 돈을 꺼내 간수 선생에게 바쳤다. 공돈이 생긴 간부는 대놓고 표시를 내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기분이 좋은 듯 보였다.

며칠 후, 드디어 나의 차례가 되어 취조를 받으러 갔다. 부동자세를 졸업하고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매를 맞아가며



〈북한 보위부의 탈북 여성 취조 장면 재연 (북한정의연대 홈페이지)〉



조사를 받았던 아이들이 떠올라 다리가 후들거렸다. 판자 같은 것으로 맞았는지 온몸에 멍이 든 채 매일 밤 울면서 감방에 들어왔다. 나는 제발 좋은 간수 선생에게 조사를 받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다.

취조를 받는 방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지숙하고 무뚝뚝한 보위원이 앉아 있었다. 나는 삼사일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그 간수는 나를 때리지 않고 점잖게 말로 취조를 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자백서를 써야 하는데 특별히 강도나 절도같이 범죄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비법 월경자이다 보니 자백서는 자연스럽게 기행문이 되었다. 어디서 어떻게 팔려갔고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는데 맘속에 웬지 모를 회한이 차올랐다.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학대와 두려움, 공포 속에 끔찍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반짝였던 희망의 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누군가와 나누거나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감옥 안에서의 취조 시간이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다. 🙏

## + 남북미 정상 사상 첫 판문점 회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회동을 가졌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후 자유의집으로 이동했다. 이번 만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북미 정상은 오후 3시 54분에 자유의집으로 입장해 취재진 등 장내를 정리하고 3시 59분부터 모두발언을 하며 회동을 시작했다. 각자의 발언을 마친 북미 정상은 취재진들을 모두 내보내고 오후 4시 4분부터 단독 회동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회동은 4시 52분에 종료됐다. 양 정상은 빠른 시일 안에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각각 서로를 백악관과 평양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동안 갑작스럽게 결정되어 사실상 하루 만에 급박하게 준비됐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격식과 의전을 깨는 파격적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늘 이후 상황이 과거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7월 1일 두 정상의 전날 판문점 회동을 다룬 16분 분량의 기록영화를 방영하며 조미(북미)관계 개선 및 발전에 대한 기대와 추가 만남 약속 등에 대해서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 북, 한미훈련에 북미 실무 회담과 남측 쌀지원 연계… 차질 불가피



북한이 7월 16일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북미 실무협상과 연계하면서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한 협상에 장애물이 놓였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의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언급하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미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별도의 담화를 통해 판문점 회동 당시 한미 훈련 문제가 북미 정상 간에 논의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기도 했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북측에 실무협상을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도 북한 내부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삼아 쌀 수량을 거부하려는 움

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7월 24일 북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을 이유로 WFP에 남측의 쌀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WFP가 북한과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 이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WFP를 통해 북측 공식 입장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타개를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내산 쌀 5만t을 WFP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WFP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한미의 '19-2 동맹' 연습은 종전 시행된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일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UFG가 축소 시행되는 것이고 전략자산 전개도 이뤄지지 않지만, 북한은 한미 군사연습 자체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미 농무부 "북한 올해 쌀 예상수확량 136만t…10년 사이 최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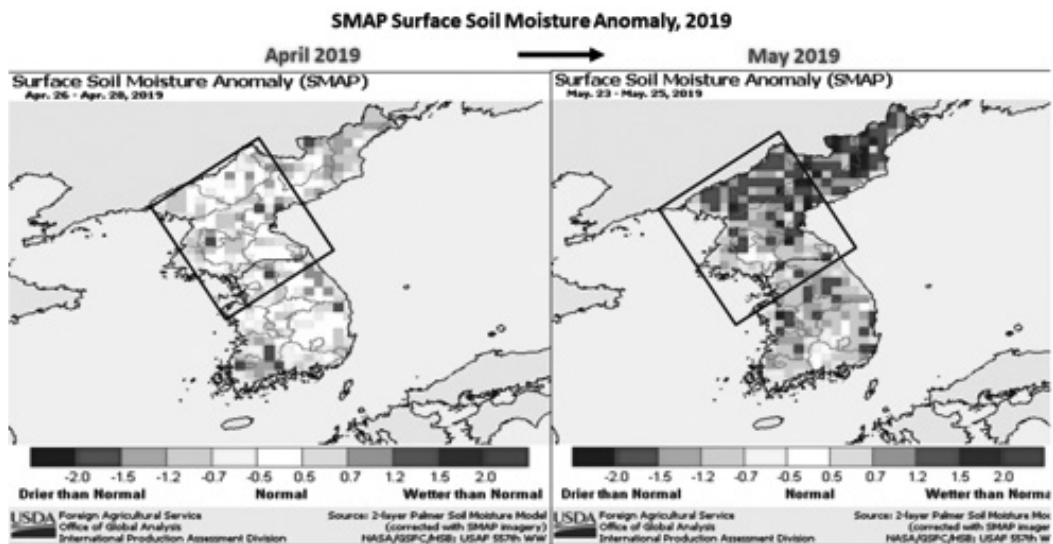
미국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쌀 수확량이 물 부족 등으로 인해 136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농무부는 7월 22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낮은 평균 강수량과 농업용수 조달능력 부족, 평년보다 건조한 기후 등을 올해 4~6월 북한 농업의 특징으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예상한 136만t은 '10년 사이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북한의 쌀 수확량과 같은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17% 적은 양이기도 하다.

특히 농지 1ha당 쌀 생산량은 4.18t으로 생산량이 적었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15%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무부는 인공위성 자료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 지역에서 물이 부족하고 토양 수분 상태가 나빠지게 된 것이 쌀 생산에 악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미국 농무부가 22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 게재된 토양 내 수분 분석 자료. 인공위성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토양은 흰색(보통)을 기준으로 붉어질수록 건조, 파란색 계통으로 진해질수록 습윤하다는 의미. 올해 4월(왼쪽)에 비해 5월(오른쪽)에 토양 건조 현상이 심해진 것을 볼 수 있다[농무부 보고서 캡처]>

## + 북한 억류되었던 호주유학생 무사히 풀려나… 억류 사유는 논란

북한의 호주 유학생 알렉 시글리(29)씨가 6월 25일 억류되었다가 7월 4일 풀려나 추방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시글리 씨를 "반공화국 모략선전행위"로 단속했다가 사죄를 받고 추방했다고 7월 6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오스트레일리아 유학생 알렉 크 씨글리(알렉 시글리)가 인터넷을 통해 반공화국 모략선전행위를 하다가 지난 6월 25일 우리 해당 기관에 현행으로 단속됐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인도주의적인 관용을 베풀어 7월 4일 그를 우리 경내에서 추방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시글리가) 반공화국 언론매체들의 사촉(사주) 밑에 유학생 신분을 이용하여 평양 시내의 구석구석을 싸다니면서 시탐의 방법으로 수집분석한 자료와 사진들을 수차례에 걸쳐 넘겨준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른바 '반공화국 언론매체'를 거론하면서 대북매체 NK뉴스 실명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글리는 "내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분명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시글리는 7월 9일 트위터에 "내가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건넨 유일한 자료는 블로그에 공개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여행사'라는 북한 전문 여행사의 설립자인 시글리는 2013년부터 호주에서 '통일여행사'(Tongil Tours)라는 소규모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김일성 대학에서 조선 문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글리는 트위터와 블로그에 사진과 영상, 글 등을 올려 평양에서의 삶을 소개해왔으며, 2017년 ABC 방송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매우 흥미로운 나라로, 세상에 북한 같은 나라는 없다"며 북한에서 여행하는 것이 위험하지도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도 시글리가 체포된 6월 25일 그가 설립한 '통일여행사'의 사장이 북한을 "아주 매력적인 나라"로 찬양하며 "실지로 조선(북한)에 와보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뜨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라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기도 했다.

## + 북 대남 대외 선전매체 “남한 대신 미국과 직접 대화해야 훨씬 생산적”



〈북한 대외 선전 사이트 ‘메아리’〉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6월30일) 이후에도 여전히 남북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북한의 대남·대외 선전 매체들이 7월 13일 '한미 공조'가 지속되는 한 남북이 따로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소외론,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다' 제목의 논평에서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한국소외론'이 대두하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와 마주 앉아 공담하기보다는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대상하여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고 밝혔다. 또 "'한국소외론'은 북남관계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 당국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남조선 당국이 조선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제정신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주적 입장을 지켜야 하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북남선언들의 이행에 과감히 적극적인

로 나설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아리' 역시 이날 '소외는 스스로 청한 것이다' 제목의 글에서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화, 실천이 없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열 백번 마주 앉아 대화를 진행하고 아무리 좋은 선언을 발표해도 외세의 눈치나 보고 이러저러한 조건에 빙자하며 실천하지 않는 상대와 마주 앉아 봐야 무엇이 해결되겠는가"라고 썼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상대와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는 것"이며 "스스로 자처한 '한국소외'이니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남조선 당국의 몫"이라고 역설했다. '중재자'요, '촉진자'요 하면서 허튼 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북남관계 문제의 당사자로서 선언(남북정상 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한 당국이 대북 제재 문제가 걸려있는 남북 교류·협력 합의 이행 등 과정에서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를 해보아야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외용 매체가 이런 주장을 폈다는 점에서 남측 당국이 미국을 설득해 남북공동 선언 이행을 주도하거나 독자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내포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 + 38 North, “북한, 화웨이 등 중국 IT 기업과 함께 도청·감시망 구축”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38 North)는 7월 22일, 북한이 중국 기업과 함께 북한 내 고위 간부들의 통신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청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08년 5월 북한 체신청 산하 조선체신회사(KTPC)와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콰이 말레이시아에서 만나 나눈 이야기가 적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나온 것이다. 회의가 개최된 2008년 5월은 KTPC와 오라스콰이 합작하여 고려링크를 설립해 3세대 이동통신망(3G)을 구축하기 수개월 전 시점이었다. 당시 회의는 기술 실무진 급으로 진행됐으나 리수용 당시 제네바 유엔사무국 북한대표부 상임대표도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합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인 LIG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는 전 세계적으로 법 집행기관에서 범죄자를 감시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이다. 북한은 고위급에 도청 장치를 갖춘 단말기를 지급해, 인사 2500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300통화를 모니터링할 계획이었다.

북한은 동시에 60명의 운영자가 로그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해 7테라바이트 규모의 저장 시스템에 정보를 담을 계획을 마련했다고 38노스는 전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3국 통신망보다 국내에서 직접 개발한 암호화 시스템을 택했다. 통화 내역이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자유롭게 감청·감시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중국 IT 기업들의 손을 빌렸다. 하드웨어는 화웨이를 통해서 조달하고 소프트웨어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판다인터넷 서널 정보기술에서 개발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도 같은 자료를 토대로 화웨이·판다인터넷 서널정보기술과 북한 정부 간 협력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38노스는 현재 고려링크와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강성넷의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500만명에 달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언급하며 북한에 보급된 휴대전화에는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앱을 차단하거나, 무작위로 스크린샷을 찍어 활동 기록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다고 전했다. (참고: 38North 7.22, 동아일보 7.23)

## + EU, 독자 대북제재 대상 갱신 발표...개인 57명, 기관 9곳



유럽연합(EU)은 7월 16일 관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관련해 독자 대북제재의 제재대상 명단을 갱신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EU의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57명, 기관 9곳으로, 이들은 EU 역내로의 여행 제한과 EU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다.

EU의 이번 대북제재 대상 갱신은 제재대상을 추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재대상자가 사망하는 등 신변 변화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대북제재대상의 변화보다도 EU가 왜 이 시점에 대북제재대상을 갱신해 발표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더 쏠린다.

EU는 그동안 북한의 WMD 개발을 저지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이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독자적으로 제재를 해왔

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EU가 EU 법에 적용하고 있는 대북제재대상은 개인 80명, 기관 75곳이다.

EU는 이날 대북 제재 대상을 갱신해 발표하면서 "EU의 대북 제재는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한 제재보다도 강력하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돼야 하고, 그런 목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외교적 활동이 계속돼야 한다는 신념을 누차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EU는 또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북한을 새롭게 알면 통일이 보인다

저자: 김상수

출판사: 두란노

발행일: 2019년 6월 12일

가격: 13,000원

교회에서부터 통일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비록 여건의 어려움이나 관심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대적 부르심, 통일과 북한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의지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남한에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지 겨우 20년이 넘어가고 3만이 넘는 탈북자들이 와 있지만 남한에서 탈북자들을 실제적으로 복음화하고 양육해본 경험이 있는 교회는 전체 교회를


생각하면 매우 소수이고 참고하고 따를만한 예시가 적은 상황이다. 다행히 먼저 탈북자 사역을 시작하고 통일 목회를 실천해온 교회와 사역자들의 헌신을 통해 일선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점차 열리고 있다. 온누리교회 하나공동체를 담임하셨던 김상수 목사님의 책, ‘북한을 새롭게 알면 통일이 보인다’ 역시 일선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할만한 실제적인 탈북자 양육 경험을 나누고 있는 좋은 참고 도서이다.

이 책은 온누리교회의 탈북민 부서인 하나공

동체의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민 사역의 필요성과 실제적인 방법, 그리고 통일의 비전을 나누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먼저 기본적인 북한과 탈북민,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해 가져야 할 바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역의 기본은 올바른 사역 철학을 확립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북한, 통일 같은 화제는 의도치 않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맥락에서 책의 초반부에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북한, 통일, 탈북자와 탈북민을 바라보아야 할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어조로 설명하고, 사역의 대상이 될 탈북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한다.

책의 중반부터는 하나공동체 사역 경험을 나누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 책의 백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사역 간 성공사례와 실패를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닌, 탈북민들에 대한 목회적 접근의 실재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배, 양육, 사역, 선교, 공동체라는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탈북민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 나갈수 있는지에 대해 경험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을 실제적인 조언을 성경적인 바탕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남한의 일반 성도들과 공통된 점도 있지만 다른 특성도 많다 보니 탈북민들이 겪는 신앙 생활의 어려움은 기존의 목회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그것과는 또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 책의 설명과 조언은 그런 면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책의 마지막은 통일에 대한 비전을 나누며 마무리하고 있다.

이 책은 교회가 통일의 비전을 품고 탈북민 사역을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 독자들을 도전하고 있다. 학문적, 학술적으로 복잡하게 쓰여진 책이 아닌 만큼 일반 신앙서적으로서도 은혜가 되는 책이다. 목회 현장에서 고민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이런 실제적인 자료 하나 하나가 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교회적 필요는 느끼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도전하는 일이 쉽지 않고 느낄 때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평소에 탈북민에 마음은 있으나 막막함을 느끼던 분들이나 주위 성도들이 탈북민 사역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돕고 싶지만 어려움을 느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 본다. 

## 북한 기도 제목

1. 제외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해 기도합니다. 5만에서 10만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이 지금도 나라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북한과 주변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탈북자들은 제대로 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 채 물건처럼 팔리기도 하고 강제 복송의 위협을 받으며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합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을 외면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외 탈북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인권 탄압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탈북자 문제는 주변국들의 태도를 넘어 북한 정권의 강경한 주민 통제와 탄압 정책에 그 근본 원인은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야말로 탈북자 문제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산간오지 및 탄광 등에 추방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수 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성도들 및 그 후손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하여 북에 납치되거나 잡혀간 탈북민 출신 사역자 및 조선족 사역자들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인권 탄압이 중단되고,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을 둘러싼 외교의 방향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는 북한의 핵문제를 중심으로 북한과 미국간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과 대립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도록, 특히 북한 핵이 확실한 폐기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가 외교 무대에서도 다루어지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기도합니다. 나라 간의 힘겨루기에 따른 정치적 게임판이 아닌 진정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가는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한 결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통일과 북한, 탈북자들에게 무감각하고 외면해 왔던 것이 결국 이단과 사이비가 관련 분야에서 활개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아닌지 돌이켜 반성해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통일과 북한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이단과 사이비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의 영혼들을 섬기고 통일을 앞장서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최근 북한의 경제 사정, 특히 농사 작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제재로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특히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봄철 가뭄 등으로 제때 모내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 앞으로의 식량 사정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의 지력 감소로 인한 소출 감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그 땅에서도 소외된 낮은 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특별히 신자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실제로 돕기 위한 구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그 땅의 영혼들에게 영육 간의 도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6.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근래에 북중 관계 발전 속에 중국 내에 탈북자 색출 및 체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자나 관련 활동가들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파괴하려는 북한 당국의 활동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을 비롯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계속된 어려움을 창의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합니다.

7.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및 자체 후원 라디오 사역 등을 통해 라디오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 성도와 주민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한 음질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9년 8월 1일





**2019**

#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 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19년 10월 9-10일(1박 2일)**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68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120km

**참가비: +3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참가인원: 해외 10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여성 사역부분 : ○명 / 일반 사역부분 : ○명)

## 주요업무

-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배정(개별 협의)
- 여성 부분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 참여

## 지원자격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모집 부분에 따라 신학 비전공자 지원 가능)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공산권 선교에 헌신된 자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http://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